

화순적벽 버스투어 23일부터 운영… 지역 활력 기대

2024년 대비 40% 이용객 늘어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 까지
당일 현장 선착순 예약 방식
기상 상황 악화시 운행 취소

남도의 대표적인 자연경관인 ‘화순적벽’ 일원을 여행할 수 있는 버스투어가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전라남도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2025 화순적벽 버스투어’가 23일부터 11월30일까지 운영된다.

지난해 재단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면서 ‘화순적벽 버스투어’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재단의 전략적인 기획력과 홍보, 체계적인 운영으로 순수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셔틀 이용객 수는 무려 40% 이상 급증 했다. 적벽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 제시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보탬이될것으로 기대된다.

화순적벽은 동북담 상류 약 7km 구간에 걸쳐 형성된 절벽 지형으로, 물염적벽, 창랑적벽, 보산적벽, 장항적벽(노루목



적벽) 등 네 곳의 주요 적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1519년 기묘사화로 유배 온 신재 최산두가 이곳의 풍광에 감탄하여 중국의 적벽보다 아름답다 하여 ‘적벽’이라 이름 지었다는 역사적 배경도 함께 품고 있다.

화순적벽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방문객들은 반드시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지정 구역 외 출입은 금지된다.

올해 화순적벽 버스투어는 ‘셔틀버스’와 ‘투어버스’ 두 가지 형식으로 운영된다. 화·목·금·토·일요일 운영으로 매주 월

·수요일 휴무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화순적벽 셔틀버스는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월·화요일 휴무) 운영한다.

매표 및 탑승 장소는 △화순온천 주차장 △이서커뮤니티센터 △적벽초소 입구 3곳이며 각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탑승할 수 있도록 1일 최대 7회까지 운행된다.

요금은 탑승지점에 따라 화순온천 주차장에서 출발 시 1인당 7000원, 이서커뮤니티센터나 적벽초소 입구에서 출발할 경우 5000원이다.

예약은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별도 사전 예약은 받지 않는다.

단 관광객이 많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조기 매진될 수 있어 이른 시간 방문이 권장된다.

첫 셔틀버스는 오전 10시에 출발하며 오전 9시30분부터 현장 매표를 진행한다. 운행 시간표에 따라 각 탑승지는 30~4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편리하게 주요 적벽 포인트까지 연결된다.

체계적인 관람과 해설을 원하는 관광객에게는 화순적벽 투어버스가 제격이다

는게 재단의 설명이다.

투어버스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만 운영되며 화순읍 이용대체육관(화순군 화순읍 학포로 2698)에서 출발한다.

투어 시간은 약 3시간으로 단순한 풍경 감상이 아닌 깊이 있는 문화체험이 가능하다.

이용 요금은 1인당 1만원이며 온라인을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예약은 탑승일 기준 2주 전부터 2일 전까지 가능하며 사전 예약 없이는 탑승할 수 없다.

투어 당일 기상 상황이 악화될 경우(시간당 10mm이상의 강수) 차량 운행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약 금액은 전액 환불된다.

구종천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벽 경관 중 하나인 화순적벽의 진면목을 많은 관광객이 느낄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했다”며 “힐링과 자연, 감동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이번 2025년 화순적벽 버스투어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운영
화순군보건소, 원에 치료 등

전라남도 화순군이 지역 주민의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해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2일 화순군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1일 한천면 평리 경로당에서 마을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첫 회를 운영했다.

이번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은한천면 평리 어르신들에게 치매 예방 및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치매예방수칙 3·3·3 △치매안심센터 사업 및 이용 안내 △원예치료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원예치료 프로그램은 가랑코에 식물 심기를 통해 참여자들이 직접 화분에 식물을 심고 관리하면서 소근육을 향상하고 교육 참여 어르신들 간의 소통을 통해 사회성을 고려하도록 구성됐다.

박미라 보건소장은 “치매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비약물적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 치매안심센터는 어르신의 이동 편의를 위해 매 화차마다 무료로 운영하는 안심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군, 29일 재즈 축제 연다
오후 7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전라남도 화순군은 오는 29일 오후 7시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서 ‘2025 화순 재즈 축제 ·국제재즈데이 in 화순’이 개최된다고 22일 밝혔다.

‘2025 화순 재즈 축제 ·국제재즈데이 in 화순’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2025년 ‘국제 재즈데이’를 맞이해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롬 반 바벨(Rob Van Bavel)과 그의 트리오를 초청해 추진하는 행사로 재즈의 정수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자리다.

지난해 개최된 ‘2024 화순 재즈 축제 - 국제재즈데이 in 화순’에는 롬 반 바벨이 솔로로 참여해 화순 청년들과의 협연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올해는 그의 정식 트리오가 전원 내한하여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는 재즈 사운드를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롬 반 바벨 트리오와 함께 드러머로 무대에 오르는 신원주는 화순 출신 청년 뮤지션으로 이번 협연을 통해 국내외 재즈 애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화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서 개최되며, 전석 무료 초대 형식으로 운영된다. 관람을 희망하는 경우 포스터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구글폼으로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10인 이상 단체 관람은 이메일(01090590102@hanmail.net)을 통해 별도 문의하면 된다.

강삼영 문화예술과장은 “세계적 아티스트가 화순에 방문한 흔치 않은 기회이니 많은 군민이 함께 참석해 국적을 넘어 소통하는 재즈 예술 공연을 즐기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농업·농촌 현장학습 업무협약
농협전남본부-청암대학교
학점 및 봉사시간 인정 등

농협전남본부는 지난 21일 청암대와 청암대 이노베이션홀에서 농업·농촌 현장학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광일 농협전남본부 본부장, 김성홍 청암대 총장직무대행, 이석주 청암대 연합봉사단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농촌봉사활동 참여 학생에 대한 학점 및 봉사시간 인정, 농촌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대학 발전기금 지원(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후원), 농촌복지센터 운영을 통한 대학생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을 통해 농촌 지원과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 후 청암대 연합봉사단은 돌보기 지원, 이미용 서비스, 틀니 세척 등 복지 서비스와 홀로어르신들의 집안정리 및 전등 교체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봉사활동을 추진했다. 청암대는 2학기부터 학생들의 농촌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농협전남본부는 학생들이 농촌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얻고 동시에 농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광일 농협전남본부 본부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청암대 학생들이 농촌에서 즐거운 기억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통한 배움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전남 농협은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농촌을 이해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참여를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홍 청암대 총장직무대행은 “오늘 협약으로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촌에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며 “대학과 농촌이 한데 어우러지도록 학생들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담양군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 잔류농약 무료 검사 운영

전라남도 담양군이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담양군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운영한다.

22일 담양군에 따르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따른 적정 농약 사용을 유도하고 잔류허용기준 이내의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정밀 분

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총 463종의 농약 성분을 극미량까지 분석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 2430건의 잔류농약 검사를 수행해 담양군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했다.

검사는 담양군 농업인 대상 무료로 진행되며 검사 희망자는 수확 2주 전 농산

곡성군, 추경예산 5049억원 편성… 지역 개발 초점

1회 4911억원 대비 138억원 증가

전라남도 곡성군이 소규모지역개발사업과 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049억원을 편성하고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추경예산 규모는 지난 1회 추경예산 4911억원보다 138억원(2.8%) 증액된 일반회계 4768억원, 특별회계 281억원

이다.

추경예산 반영된 주요 사업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3억원, 곡성을 중심지 활성화 사업 16억원, 농림분야 육성 30억원, 지역개발 36억원, 환경 17억원, 문화관광 4억원, 일반행정 3억원 등이다.

또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분은 부서별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우선순위별로 반영했으며 하수도 사업 등 연내 마무리

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추경예산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의 수입을 반영했다”며 “지역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발주가 가능한 지역개발사업 등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제272회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9일 최종 확정된다.

곡성=김대영 기자